

1월 셋째 주 기사 스크랩

[주요 뉴스]



김태석 의장, 인도네시아와 지속가능발전 의제 공감대 (p. 1)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인도네시아도 유치 박차 (p. 2-3)



'햄스터재판' 승소로 할랄약품 인증... 대웅, 동남아 무슬림 공략 (p. 4-5)

아시아투데이 조코위 대통령, "인도네시아 새 수도, 뉴욕 런던 인구와 동등할 것" (p. 6)



롯데마트 자리 지킨 문영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 확장 더 민다 (p. 7-8)

김태석 의장, 인도네시아와 지속가능발전 의제 공감대 형성

2020년 지속가능발전 제주 국제컨퍼런스 초청

[시사매거진/제주=박은교 기자]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인도네시아와 지구 온난화 등 지속가능발전 의제들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며, 오는 4월 제주에서 열리는 2020년 지속가능발전 제주 국제컨퍼런스에서 머리를 맞대기로 합의했다.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김태석 의장과 김용범 의원, 정민구 의원, 조훈배 의원 등 방문, 지구 온난화 등 지속가능발전 의제들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 의장은 지난 10일 김용범 의원과 정민구 의원, 조훈배 의원 등과 집권당인 '투쟁민주당' 창당 기념식에 초청받아 인도네시아를 방문, 자카르타 의회에 제주 국제컨퍼런스 초청장을 전달하고 현장에서 참가 확답을 받았다.

자카르타 의회 지타 부의장은 "지속가능발전 컨퍼런스는 매우 의미있고 중요한 행사"라며, 인도네시아도 세계 국가적 의제로 떠오르는 지속가능발전 여러 의제들을 공유하고 머리를 맞대기 위해 4월에 제주를 방문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지구 온난화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구촌은 지속가능발전을 온몸으로 요구하고 있다"라며 "제주와 인도네시아는 섬으로 비슷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의제 공유속에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에는 투쟁민주당 창당 기념식에서 메가와티 전 대통령과 뿌안 인도네시아 국회 의장, 조후인 전해수부장관. 히스트 투쟁민주당 사무총장과 환담을 갖고 지속가능발전 의제들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최근 때아닌 폭우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집권당과 국회 그리고 자카르타 의회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 컨퍼런스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제주도의회 인도네시아 방문단은 지속가능 컨퍼런스 외에도 제주 1차상품 판로 확대를 위해 인도네시아 자산공사 대규모 유통업체를 방문 의견을 교환했다.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개최?...인도네시아도 유치 박차

송고시간 | 2020-01-13 11:59

인니올림픽위 "자카르타에 새 훈련시설 짓고 특별위 구성"

(자카르타=연합뉴스) 성혜미 특파원 = 남북이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유치를 추진하는 가운데 인도네시아도 유치경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자카르타 겐로라 봉 카르노 스타디움[자카르타=연합뉴스]

13일 일간 콤파스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올림픽위원회(KOI)는 "2032년 올림픽 유치를 위해 세계적인 수준의 훈련시설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인니올림픽위원회는 "자카르타에 훈련시설을 새로 짓기 위해 정부와 함께 여러 장소를 검토 중"이라며 "훈련시설은 운동선수들이 성과를 내는데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이어 "건설비용은 민관협력(PPP) 방식으로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선수들의 훈련 프로그램이 홍수로 차질 받는 일이 없도록 새 훈련시설을 건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올림픽 개최지를 선정할 때 '지속가능한 발전 가능성'에 중점을 둔다"며 "앞으로 건설할 시설은 2032년 올림픽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올림픽 채화식 열린 그리스 올림피아 헤라 신전[그리스=연합뉴스]

인니올림픽위원회는 2032년 올림픽 유치를 위해 조만간 조코 위도도 대통령, 체육부장관 등과 만나 특별위원회 구성을 논의하는 한편 IOC와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작년 2월 IOC에 2032년 하계올림픽 유치의향서를 제출했다.

앞서 조코위 대통령은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당시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에게 올림픽 유치 의사를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8년 9·19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유치를 선언했고, 작년 11월 정부 실무추진단이 첫발을 내디뎠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인도, 독일, 이집트, 호주 등도 2032년 하계올림픽 유치에 관심을 보인다.

noanoa@yna.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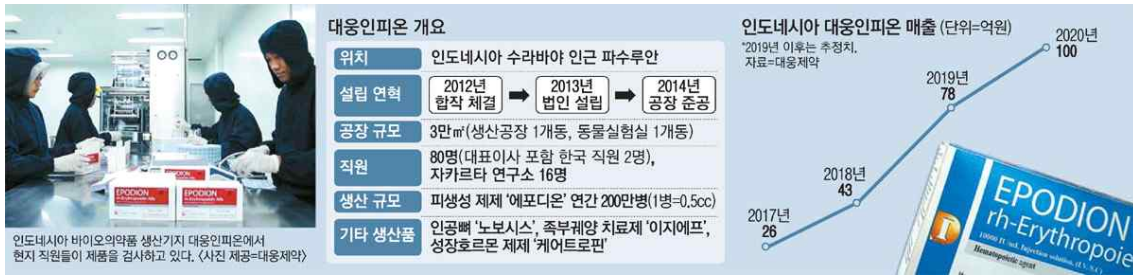
‘햄스터재판’ 승소로 할랄약품 인증...대웅, 동남아 무슬림 공략

서진우 기자 입력 : 2020.01.13 17:45:23 수정 : 2020.01.13. 22:01:02

동남아 첫 바이오공장 대웅인피온
 햄스터 세포로 빈혈치료제 제조
 종교법원 ‘햄스터세포 약품’ 허용

족부궤양·성장호르몬제제도
 할랄 인증 가능성 덩달아 호재
 중동 등 인구 30억 잠재적 수요

◆ 글로벌 바이오 전쟁 / ④ 헬스케어 新시장 동남아 ◆



인도네시아 제2 도시인 자바섬 수라바야에서 남쪽으로 50km가량 떨어진 산업단지 파수루안. 이곳에 국내 제약사의 첫 동남아시아 바이오의약품 공장인 ‘대웅인피온’이 들어서 있다. 대웅제약과 현지 의약품 업체 인피온이 합작해 설립한 대웅인피온은 인도네시아 최초 바이오 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주사제인 ‘에포디온’을 생산한다. 대웅제약은 인도네시아를 ‘바이오 메카’로 키워 동남아 바이오의약품 시장을 공략한다는 야심 찬 계획을 세웠다.

지난 7일 현지 공장에서 만난 서창우 대웅인피온 대표와 인도네시아 직원들의 표정은 한껏 들떠 보였다.

나흘 전인 지난 3일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기관인 ‘무이(MUI)’가 주력 제품인 에포디온의 할랄을 공식 인증했기 때문이다. 동물세포에서 유래한 바이오의약품(에포디온)이 할랄 인증을 받은 건 전 세계적으로 처음이다. 아랍어로 ‘허용할 수 있는’이란 의미를 갖고 있는 할랄(halal)은 이슬람교가 허용하는 음식을 말한다. 할랄은 이처럼 식품 외에도 약은 물론, 바르는 의약품 가운데 피부로 흡수되는 젤이나 화장품 등 인체로 투입되는 모든 물질을 대상으로 한다. 할랄 인증을 받지 않아도 제품을 판매할 수 있지만 이슬람권에서는 기본적으로 할랄 인증을 받지 않으면 소비 자체를 하지 않는다. 그만큼 이슬람교도가 많은 동남아 지역에서 사업을 하려면 할랄 인증은 꼭 필요하다. 대웅인피온이 할랄 인증을 받은 에포디온은 중국산 햄스터 난소에서 얻은 적혈구 생성인자(EPO)로 만든 바이오의약품이다.

사람에게 투여하면 자체적으로 피(적혈구)를 생산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항암제 투여로 적혈구 수가 크게 줄어든 암 환자에게 유용하다. 특히 만성 신부전으로 신장 기능이 현저히 떨어진 투석 환자는 수혈 없이 에포디온만으로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에포디온이 할랄 인증을 받기 전까지만 해도 국내 제약사는 물론 현지 업체도 동물세포 유래 바이오의약품으로 할랄 인증을 얻는 건 아예 상상조차 못했다. 대웅인피온도 에포디온의 할랄 인증을 받는 데 2년 넘게 걸렸는데, 동물인 햄스터 난소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서류심사에서 2번 탈락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인도네시아 이슬람 종교법원은 할랄이 금하는 쥐의 DNA와 중국산 햄스터 DNA가 크게 다른 점(쥐 염색체 42개, 햄스터 염색체 22개)에

따라 햄스터가 설치류이긴 하지만 일반 쥐와는 다르다는 의견을 채택하고 대웅인피온 측 손을 들어줬다. 자카르타 국립 인도네시아대와 공동 연구소를 만든 대웅제약이 이 대학 종교 학자와 생물학자 자문을 얻어 이들을 증인으로 내세운 이른바 `햄스터 재판`에서 승소하면서 할랄 인증으로 연결됐다는 게 대웅인피온 측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대웅인피온은 인도네시아 적혈구 생성제제 시장에서 에포디온 점유율이 40% 수준이지만, 할랄 인증에 힘입어 80%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웅인피온은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에포디온 외에 상피세포성장인자(EGF)를 활용한 당뇨성 족부궤양 치료제(스프레이형) `이지에프`도 올 상반기 중 판매에 나설 예정이다. 성장호르몬 제제인 `케어트로핀`은 내년부터 생산에 들어간다. 에포디온에 이어 이들 두 가지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할랄 인증 가능성도 한껏 높아졌다. 대웅인피온은 에포디온 판매로 지난해 78억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올해는 이지에프까지 더해 총 100억원대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할랄은 제품뿐 아니라 해당 제조시설에 대한 인증도 의미한다. 대웅인피온 공장 자체가 까다로운 `청정 의약품 제조` 조건을 만족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강화된 품질(GMP) 기준을 적용한 대웅인피온 공장은 천장에 마련된 공기필터를 통해 작은 먼지(파티클)까지 실시간으로 잡아내고, 과산화수소 샤워로 모든 기기를 수시로 소독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특히 공정별로 구획된 공간 사이에는 사람이 일절 이동하지 못하고 오로지 밀봉된 금속 파이프로만 바이오 원료를 이동시킨다. 국내에선 구획된 공간 사이를 직원 1명이 바이오 원료 탱크를 손수 끌고 이동하지만, 이 공장에선 여러 직원이 분리된 공간에서 원료를 제조한 후 이를 파이프로만 옮기기 때문에 균이 침투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서 대표는 "한국에 비해 이곳에선 인건비가 저렴해 다수 직원을 고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구획 공정 처리가 가능하다"며 "한국보다 까다로운 유럽 제조공정(EU GMP) 기준에 따라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에포디온 할랄 인증을 내준 인도네시아 무이는 말레이시아 자킴(JAKIM), 싱가포르 무이스(MUIS)와 함께 동남아 3대 할랄 인증기관이다. 특히 세계 4위 인구 대국(2억7000만 명)인 이슬람국가 인도네시아에서 할랄 인증을 받으면서 동남아 전역으로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교두보를 얻었다는 분석이다. 대웅인피온은 인도네시아를 발판 삼아 인근 이슬람국가인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를 거쳐 남부아시아 인도(이슬람교도 20%),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나아가 중동까지 이슬람권 전체로 바이오의약품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서 대표는 "중동에도 대웅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장을 세우는 게 차후 목표"라며 "이를 통해 유럽 진출까지 감안하면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소속국과 이슬람 인구 30억명이 잠재적 수요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수라바야(인도네시아) = 서진우 기자]

조코위 대통령 “인도네시아 새 수도, 뉴욕 런던 인구와 동등할 것”

배정희 기자 | 기사승인 2020. 01. 14. 15:38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신수도 건설 투자를 위해 전세계 국가와 기업을 초청한 가운데 신수도에 대한 비전을 발표했다.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조코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열린 ‘아부다비 지속가능성 주간’(ADSW) 기조연설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수도에 최고의 기술과 혁신, 지혜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전 세계를 초대한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해 8월 수도를 현재 자바섬 자카르타에서 보르네오섬 동칼리만탄 지역으로 이전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자바섬에 인구와 경제력 편중 현상이 심하고 특히 자카르타가 수해 등 재해에 취약해 더 이상 수도 이전을 늦추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조코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중앙정부에는 140만 명의 공무원이 있는데, 그들의 가족까지 약 600만에서 700만 명의 사람들이 새 수도로 이주할 것”이라면서 “인구가 뉴욕·런던과 동등하며 파리의 3배, 워싱턴 DC의 10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스마트한 대도시로 건설하고 싶다”고 말했다.

조코위 대통령이 구상하는 신수도의 건설은 최첨단 도시, 녹색산업 성장을 지원하는 스마트 시티다. 조코위 대통령은 “새로운 수도는 최신 기술이 뒷받침되는 혁신과 창의성을 위한 장소여야 한다”면서 “친환경적이고 주민들에게 행복을 제공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 많은 인구가 이주할 것을 대비해 저탄소와 환경을 책임지는 21세기의 도시 생활 방식에 주목해야한다고도 강조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신수도 개발은 대중교통과 보행자 중심의 효율적이면서 저탄소 라이프 스타일을 채택해야한다”면서 “친자연적인 새로운 도시를 건설함으로써 낭비하는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생 에너지와 청정 기술을 통한 경제와 사회발전이 지속 가능한 삶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코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는 17000여 개의 섬으로 이뤄져 있는데, 모든 국민이 개발을 느낄 수 있도록 공평한 발전이라는 개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0년에 새 수도 건설을 시작해 2024년 이주 완료를 목표로 한다. 신수도 건설비용은 대략 330억 달러(40조원)로 추산된다.

배정희 기자 gazwsx6789@asiatoday.co.kr

롯데마트 자리 지킨 문영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 확장 더 민다

장은파 기자 2020-01-19 07:30:00

문영표 롯데쇼핑 마트사업부장 부사장이 올해 롯데마트의 핵심 해외시장인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 출점에 속도를 낸다.

한국은 정부의 각종 규제로 대형마트 출점이 어려운 데다 온라인과 최저가 경쟁을 펴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영업이익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 문영표 롯데쇼핑 마트사업부장 부사장.

19일 롯데마트에 따르면 2023년까지 인도네시아에 롯데마트 점포 100곳, 베트남에 40곳의 점포를 운영할 계획을 세워뒀다.

인도네시아만 놓고 봐도 3년 동안 50개 매장을 늘리는 것으로 단순 계산해 보면 1년에 16~17곳 가량을 출점하는 셈이다.

문 사업부장은 올해 인도네시아에서 롯데마트가 온라인사업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롯데마트의 독자 플랫폼도 내놓는다.

롯데마트는 이미 도매점을 통해 온라인 물류센터로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놓았고 인도네시아 10대 도시의 대형점포와 지역거점 도시의 점포를 연결해 전국적 물류 네트워크를 완성할 계획을 세워뒀다.

인도네시아는 1만7천개 이상의 섬으로 이뤄져 있어 지역별 유통망의 격차가 큰 만큼 전국적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온오프라인을 연결한다는 것이다.

롯데마트는 베트남에서도 2019년 기준으로 매장 14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3년 동안 3배가량 확대한다.

특히 베트남은 외식비중이 높다는 점을 반영해 베트남 롯데마트를 '밀 솔루션' 매장으로 재단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밀 솔루션 매장은 간편 식사류나 베이커리류 등 마트 안에 식품 코너를 강화한 매장을 말한다.

문 사업부장이 이렇게 해외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는 것은 국내에서는 적자를 보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실적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롯데마트는 국내에서 2019년 3분기까지 영업손실 380억 원을 봤지만 같은 기간 해외에서는

영업이익 360억 원을 거둬 국내 적자를 해외 이익으로 메우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아쉬운 성적표'를 낸 문 사업부장으로서는 해외사업에서 실적이 중요하다.

롯데그룹이 임원인사와 함께 롯데쇼핑의 전면적 조직개편을 하면서 5개 사업부문장 가운데 유일하게 문 사업부장만 자리를 지켰다.

롯데마트는 지난해 3분기까지 영업손실 20억 원을 냈지만 문 사업부장이 해외시장에서 성과를 거두면서 앞으로 롯데마트가 진행할 해외사업에 문 사업부장이 책임자라는 해석이 나왔다.

실제로 문 사업부장은 롯데쇼핑에서도 동남아시아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어 현재 롯데마트가 공략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서 사업을 잘 꾸려갈 인물로 꼽힌다.

문 사업부장은 2008년 인도네시아 대형마트인 '마크로' 인수를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롯데마트의 해외진출 발판을 마련했다.

이후 문 사업부장은 2009년 인도네시아법인장을 거쳐 2011년 동남아본부장을 지내면서 동남아시아시장에서 충분한 경험을 쌓았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밝힌 출점목표를 위해 올해도 해외출점을 이어갈 것"이라면서도 "해외사업에서는 변수가 발생하기 쉬워 구체적으로 올해 몇 곳의 매장을 내는 지를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